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. 7. 29. 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신재생에너지과장 노건기(044-203-5160), 팀장 장근무(5161), 박병기 사무관(5172)

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.

- 에너지신산업 분야『태양광 대여사업』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-

- 현재 280 가구 설치계약이 완료, 순조로운 진행 중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7. 29. (화)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**'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'**를 체결했다고 밝힘. (08:00 서울 매리어트호텔,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)

○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**솔라E&S, SEIB(S-에너지 자회사), LG전자, 한빛EDS,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**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

-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(REP)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고,

  * REP(Renewable Energy Point) :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(MWh 기준)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

  * 대여사업자는 REP판매(216원/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)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(월 최대 70만원) 수익으로 초기설치비 회수

-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,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**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**하기로 함.

□ 협약식에 이어서 **'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'** 가 개최됨.

○ 회의에서 태양광대여사업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**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**이 되기 때문에 **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**임을 밝히면서,

  *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(월전기료 101천원)는 설치 후 7년까지는 월평균 21천원, 8~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

-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해 **'17년까지 약 1만 가구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**하고,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(A/S)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.

  * 미국은 '12년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약 60%가 대여를 통해 설치 (수출입은행 '12년)

-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**정부가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규 창출**해 준 것으로,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(新)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건의함.

○ 김준동 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**7. 18. 발표된 6개 에너지 신(新)산업*의 대표 사업**으로

  * 전력수요관리사업,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, 에너지자립섬 사업, 태양광 대여사업,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, 화력발전 온배수열활용사업

- 그 동안 **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**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,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함.

□ 한편 올해 6월 하순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7. 22. 기준으로 **280여건의 계약을 완료했고, 약 380건이 계약 협의중**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함.

< 별도송부 > 태양광대여사업 협력협약서 체결 사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장근무 팀장(☎ 044-203-5161)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김선택 과장(☎ 031-260-46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